

전남 → 광주로, 광주 → 수도권으로

환자 역외 유출 도미노 심화

광주·전남 지난해 진료비 5,600억 빠져나가

■2007년 광주·전남 진료비 유·출입현황 (단위: 억원)

| | 외부유입 (A) | 외부유출 (B) | 진료비 손익 (A-B) |
|----|----------|----------|--------------|
| 광주 | 3,030 | 1,605 | 1,424 |
| 전남 | 2,295 | 4,036 | -1,741 |

〈경남보훈병원〉
장 많은 지역은 경기지역으로 한 해 7천882억원의 진료비 수치상 손실을 봤고, 다음으로는 경북(-3천277억원), 충남(-2천412억원), 경남(-2천313억원) 순이었다.
반면 서울지역 유입 진료비는 1조5

천180억원으로 대구(2천645억), 부산(1천801억), 광주(1천424억), 대전(1천372억) 등 5개 광역시에 유입된 진료비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았다.
임두성 의원은 "의료이용 실태현상은 교통 발달, 대국민인식 등 사회 문화적인 요인에 의해 가속 및 고착되는 측면이 있다"며 "장기화될 경우, 지역간 의료불평등에 의한 사회적 갈등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 등 지역간 의료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전남지역 농어촌 환자들은 광주권 대형병원으로 집중되고, 광주지역 환자들은 서울 등 수도권 유명 병원을 찾아가는 일종의 '환자 역외 유출 도미노 현상'도 가속화되고 있다.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가족부 임두성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07년도 지역별 진료비 유·출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역에서 유출된 진료비는 1천605억원, 전남지역은 4천37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한해동안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무려 5천600억원의 진료비가 외부로 유출됐으며, 이중 4천억원이 의료환경이 열악한 전남에서 빠져 나간 것이다.

반대로 타 지역에서 광주와 전남으로 유입된 진료비는 광주 3천300억원, 전남 2천295억원이었다. 광주지역 유입 진료비는 전남지역 유출 진료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유입진료비에서 유출진료비를 뺀 진료비 손익을 산출한 결과 광주는 진료비로 1천424억원을 벌어들였으나, 전남에서는 1천741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는 전남지역 환자들의 원정 치료로 인해 외곽진료비 수치상 흑자를 보였으나 전남은 1천741억원의 적자를 보인 것이다.

전남지역의 환자 대부분이 광주지역 의료기관을 찾는 것을 감안해 전

남의 유출진료비에서 광주지역 유입 진료비를 제외하더라도 전남지역 환자가 수도권 병원에 지불하는 진료비는 최소 연간 1천억원에 달했다.

전남지역의 수도권 유출진료비 1천605억원을 합치면 광주·전남지역의 수도권 유출 진료비는 연간 3천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적으로 진료비 유출액수가 가



호시랑 마라톤

광주시 남구청이 주최한 '제6회 호시랑 마라톤대회'가 4천여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12일 남구 호천역광장에서 열렸다. 5km, 10km, 하프코스로서 나눠 열린 이날 대회에는 황일몽 광주 남구청장과 강은태 국회의원, 신정훈 나주시장, 임내현 민주당 민원법률위원장 등 정관계 인사들도 참가했다.

와 차 안에 타고 있던 이모(여·26)씨가 숨지고 박모(여·30)씨 등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공장서 일하던 근로자도 숨져= 11일 밤 9시50분께 여주시 국동 인근에서 김모(48)씨가 도로를 건너던 중 김모(60)씨가 운전하는 영업용택시에 치어 숨졌다. 여주시 보건소 직원인 김씨는 전국체전 근무를 마치고 귀가중 변을 당했다.
11일 오후 4시께 광주시 광산구 모 자동차 금형제작 업체에서 이 회사 직원 장모(34)씨가 작업 도중 천장에 설치된 부품이 떨어지면서 머리를 맞았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명함형 음란 광고 꼼짝마!

광주 청소년단체, 오늘 첫 고발키로

학교 주변과 주택단지 등 도심 곳곳에 뿌려지고 있는 명함형 음란 불법 광고물을 없애기 위해 광주의 한 청소년단체가 나섰다.

광주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단장 노훈오)은 지난달 22~30일까지 광주시 총장로, 상무지구 등 주요 번화가에서 명함형 불법 광고물 1천여장을 수거했다. 감시단이 수거한 음란 광고물은 광주시 동구 78장, 서구 23장, 남구 410장, 북구 139장, 광산구 234장 등 모두 884장이며, 광고물에 적힌 휴대전화 번호만 59개에 달했다.

감시단은 명함형 음란 광고물이 유흥가뿐만 아니라 학교나 아파트 단지까지 침투하고 있는 실태와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이번 조사를 했다.

감시단은 수거한 광고물과 함께 이들 업체를 13일 중 각 구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구청은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를 토대로 업체를 추적해 최소 1만5천원에서 최대 300만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감시단 서진영(여·27) 팀장은 "아이들이 명함형 전단으로 따지치기까지 한다"는 학부모들의 하소연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며 "수사기관과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대대적인 단속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감시단은 이번 수거활동에 이어 다음달에도 2차 수거활동을 벌인 뒤 수거한 불법 광고물을 구청에 신고할 방침이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광주지법 무죄 선고 2배 늘었다

공판중심주의 정착... 범정 구속도 증가

형사재판에서 불구속 재판 원칙과 공판중심주의가 정착되면서 법정에서의 무죄 선고와 범정 구속사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결과가 법원에서 뒤집히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셈이다.

12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들머리 8월 말 현재까지 본원과 목포·순천·장흥·해남지원 등 4개 지원의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203명. 지난해 같은 기간 105명에 비해 93%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 가운데 순천지원은 올해 59명이 무죄 판결을 받아 지난해 16명에 비해 무려 268%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목포지원은 지난해 13명에서 올해 26명으

로 100%의 증가율을 보였다. 광주지법 본원은 57명에서 105명으로, 장흥지원은 5명에서 9명으로 각각 늘었다.

이로 인해 지난 한해 2.5%에 그쳤던 무죄판결 공식율도 올해는 8월 말까지 25.9%로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검·경이 불구속 기소한 피고인이 법정에서 구속되는 사례도 많이 증가했다.

지난해 9월1일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광주지법에서 법정구속된 피고인은 51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 2만497명의 2.5%가 법정에서 구속 수감된 셈이다. 이는 2년 전 0.7%(2006년 8월31일 기준)에 비해 3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축제 가는 길 잇단 교통사고 참변

주말·휴일 사고 얼룩... 체전 근무 귀가 공무원 숨져

축제의 계절 가을을 맞아 나들이를 나섰던 시민들이 교통사고를 당해 잇따라 숨지는 등 주말과 휴일 광주·전남지역은 사건·사고로 얼룩졌다.

◇나들이객 잇따른 교통사고= 지난 11일 오전 10시10분께 신안군 흑산면 진리 버스승강장에서 마을버스(운전자 박모·27)가 가로등을 들이

받은 뒤 맞은편 길가에 앉아 있던 마을 주민 이모(66)씨와 박모(66)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이씨와 박씨가 숨지고 운전사 박씨와 승객 김모(여·80)씨 등 3명이 다쳤다.

숨진 이씨 등은 흑산도항에서 열리고 있는 흥어축제에 가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오전 11시40분께 무안군 현경면 현화리 도로에서 서모(61)씨가 몰던 무쏘 승용차가 2m 아래 눈으로 추락해 서씨와 서씨의 부인(58)이 숨졌다. 경찰 조사결과 서씨는 고항인 할평을 가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새벽 2시20분께 광주시 북구 임동 천변 도로에서 이모(21)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보훈회관 담벼락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운전자 이씨

와 차 안에 타고 있던 이모(여·26)씨가 숨지고 박모(여·30)씨 등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공장서 일하던 근로자도 숨져= 11일 밤 9시50분께 여주시 국동 인근에서 김모(48)씨가 도로를 건너던 중 김모(60)씨가 운전하는 영업용택시에 치어 숨졌다. 여주시 보건소 직원인 김씨는 전국체전 근무를 마치고 귀가중 변을 당했다.

11일 오후 4시께 광주시 광산구 모 자동차 금형제작 업체에서 이 회사 직원 장모(34)씨가 작업 도중 천장에 설치된 부품이 떨어지면서 머리를 맞았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승차권 3장 때문에...

반납 않고 재사용케 한 시외버스 기사 입건

시외버스 기사가 승차권 3장을 회사에 반납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사용하도록 했다가 형사처벌과 함께 일자리를 잃게 될 처지에 놓였다.

광주동부경찰은 12일 버스 승차권을 회사에 반납하지 않은 모 고속버스 운전자 장모(49)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1

일 광주시 서구 광천동 버스터미널에서 승객들로부터 받은 1만1천400원권 승차권 3장을 회사에 반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장씨의 경우 범죄의 의도가 약하지만 현행법상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안타까워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여자 다이빙 선수 몰카 찍다 덤피

◇전국체전에 출전한 여자 다이빙 경기 선수의 특정 신체부위를 캠코더로 몰래 촬영한 30대가 경찰에 입건.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A(31)씨는 지난 11일 낮 12시께 광주시 서구 중앙동 영주체육관 관중석에서 손가락 속에 숨겨진 캠코더로 B(17)양 등 여자 다이빙 선수의 신체 특정부위를 2분여간 몰래 촬영했다는 것.

◇A씨는 캠코더로 촬영하던 중 선수들이 "관중석에서 수상한 불빛이 보인다"고 항의해 체육회 관계자들에 의해 현장에서 불합격 경찰에 넘겨졌다고.

◇A씨는 여자 다이빙 선수의 특정 신체부위를 등을 촬영하기 위해 자신의 손가락에 3~5cm가량 구멍을 뚫은 후 캠코더를 숨겨 몰래 촬영했으며, 이날 성폭력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 /이종형기자 galee@